

〈바다에 빠진 소녀〉에 나타난 한국 고전서사의 변용과 그 의미*

-〈심청전〉 활용을 중심으로-

최수현**

〈차례〉

1. 서론
2. 〈바다에 빠진 소녀〉의 한국 고전서사 수용과 변용 양상
3. 〈바다에 빠진 소녀〉의 〈심청전〉 서사 변용의 특징
4. 〈바다에 빠진 소녀〉의 한국고전 서사 변용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악시 오(Axie Oh)의 〈바다에 빠진 소녀(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를 대상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 고전서사의 변용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다에 빠진 소녀〉는 한국 고전서사인 〈심청전〉을 기본 서사 구조로 활용하면서도,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 등의 고전 서사를 삽입 이야기로 변용하여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바다에 빠진 소녀〉가 수용하고 변용한 한국 고전서사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심청전〉을 바탕으로 서사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심청전〉,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를 변형해 삽입 이야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심청전〉 서사 변용의 특징을 재생 방식과 조력자 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재생이 효의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저주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통해 논문의 보완 지점을 조언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부교수

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자기 돌봄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조력자 역시 옥황상제나 용왕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서 고모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의 조상으로 변화함으로써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고 가족 돌봄을 보다 강조한다. 이와 같은 변용은 가족 돌봄, 자기 돌봄, 공동체 돌봄이 두루 나타났던 <심청전>의 주제를 계승하면서도 가족 및 공동체 돌봄과 자기 돌봄의 균형을 강조하는 돌봄 윤리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력자의 활용과 삽입 서사의 변용을 통해 혈연 공동체의 돌봄을 강조하고 민족의 서사를 보여주는데, 이는 디아스포라 콘텐츠 속 조손돌봄의 모습과 민족 서사가 나타나는 부분과 유사한 모습임이 확인된다.

주제어 <바다에 빠진 소녀>, <심청전>, 돌봄, <흥부전>, <나무꾼과 소녀>, 변용

1. 서론

이 글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악시 오(Axie Oh)의 <바다에 빠진 소녀(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를 대상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 고전서사의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의 중심 서사 구조와 삽입 이야기로 동시에 활용되는 <심청전>¹⁾의 변용 양상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1) 이 글에서는 판소리 <심청가>와 소설 <심청전>을 엄밀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포괄하여 <심청전>이란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작가는 영역된 <Sim Chung and the River Dragon>과 부모님의 이야기로부터 심청 서사를 접했음을 밝힌 바 있다. 류가영, 「한국에 대한 판타지로 쓴 소설 #악시 오 #바다에 빠진 소녀」, 『VOGUE』, 2023.11.06., <https://www.vogue.co.kr/2023/11/06/%ED%95%9C%EA%B5%AD%EC%97%90-%EB%8C%80%ED%95%9C-%ED%8C%90%ED%83%80%EC%A7%80%EB%A1%9C-%EC%93%B4-%EC%86%8C%EC%84%A4-%EC%95%85%EC%8B%9C-%EC%98%A4-%EB%B0%94%EB%8B%A4%EC%97%90-%EB%B9%A0%EC%A7%84/>, 접속일 2026.04.23.; “Axie Oh author Interview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https://www.youtube.com/watch?v=_k7FOo4n3UY, 접속일 2026.04.23.

고자 한다.

〈심청전〉은 현재 “창본, 방각본, 필사본 등의 형태로 약 230여 종 정도”²⁾가 전해지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고전서사로 〈춘향전〉, 〈홍길동전〉 등과 함께 널리 향유된 작품이다. 또한 〈심청전〉은 근대전환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설, 영화, 광고, 발레, 오페라,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현재에도 대중들과 만나고 있는 작품이다. 정혜경은 〈심청전〉을 활용한 영화가 2020년까지 총 23편이 제작되었음을 밝혔는데,³⁾ 이는 〈심청전〉이 현대 문화콘텐츠로서 활발히 창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심청전〉을 활용한 콘텐츠의 창작과 향유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상현에 따르면 〈심청전〉은 1910~20년대 초반부터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알렌의 영역본과 홍중우의 불역본인 〈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⁴⁾ 또한 조규익은 1940년대에 소련으로 이주한 이들의 자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던 고려극장에서 〈심청전〉 관련 노래가 불렸음을 밝힌 바 있다.⁵⁾ 최근에는 신호림이 재미교포 3세 줄리아류의 〈DIVE〉와 광고 〈LG gram 360 x 줄리아 류 : 심청전 Dive 편〉을 통해 디아스포라 맥락에서 〈심청전〉이 새롭게 변형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⁶⁾ 이러한 점들은 〈심청전〉이 시대와 매체, 국경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콘텐츠화되는 서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의 계열과 전승시기 연구」, 『판소리연구』 11, 판소리학회, 2000, 163~165쪽.

3) 정혜경, 「고전소설 활용 영화의 제작 흐름과 특징 - 1920~2020년대 영화사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71~73쪽.

4) 이상현, 「물허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9~410쪽, 446쪽.

5) 조규익, 「구소련 고려극장에서 불린 우리말 노래들의 성격과 주제의식」, 『온지논총』 35, 온지학회, 2013, 206~209쪽.

6) 신호림, 「〈심청전〉의 광고 재현과 의미 : LG gram 360 광고를 사례로」, 『판소리연구』 60, 판소리학회, 2025, 73~74쪽.

이 글에서 주목하는 <바다에 빠진 소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한 작품으로, <심청전>을 활용한 악시 오의 청소년 대상 판타지 장편소설이다. 악시 오는 뉴욕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 2세 작가로, 한국사와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지속적으로 소설을 출간하고 있는 이이다. <바다에 빠진 소녀>는 2022년에 뉴욕에서 출간된 이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등 다수의 나라에서 번역되었으며⁷⁾, 한국에는 2023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이 작품은 출간 이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A New York Times Bestseller)”에 오르고, “2022 뉴욕 공립도서관 최고의 책(A New York Public Library Best Book of 2022)”으로 선정⁸⁾되는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진 작품으로 주목 받아왔다.

이 작품은 <심청전>의 인신공희 모티프와 재생 서사를 활용하면서도, 주인공을 심청이 아닌 미나로 설정하고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적극적으로 추가해, <심청전>이 보여준 돌봄이라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심청전>뿐만 아니라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도 삽입 이야기로 활용하는데, 이때 가족 간의 윤리나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은 미나가 투신 후 머물게 되는 바닷속 세계에서의 조력자로 조부모를 비롯한 조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심청전>을 비롯한 한국 고전서사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살펴보는 일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에 의해 <심청전>을 비롯한 한국 고전서사가 현대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구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7) 작가 악시 오에 대한 소개와 이 작품의 번역 상황에 대한 것은 작가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악시 오 홈페이지, <https://www.axieoh.com/contact>, 검색일 2026.03.22.

8) 작품의 수상 관련 내용은 네이버 시리즈의 책 소개 부분에 제시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네이버 시리즈, “『바다에 빠진 소녀』”, <https://series.naver.com/ebook/detail/series?productNo=9936447>, 검색일 2026.03.22.

있다. 물론 이 작품은 한국의 고전서사뿐 아니라 작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야자키하야오 감독의 영화⁹⁾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합된 디아스포라 문화 혼종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작품 속 다양한 문화의 혼종성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 그 안에서 한국의 고전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고 변용되는지, 특히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심청전> 서사의 변용 방식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다에 빠진 소녀>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Mega Lestari와 Hana Farida는 이 작품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 작품이 기존의 <심청전>의 희생 논리를 변형하여 투신을 자발적 선택 행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과 여성과 자연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¹⁰⁾ 또한 Michaela Václaviková는 <바다에 빠진 소녀>와 웹툰 <그녀의 심청>을 대상으로 현대 작품에서 <심청전>이 재구성되는 방식을 살폈다. 이 연구는 주인공 미나의 선택이 <심청전>에서와 같은 유교적 의무에 기반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기반해 선택하는 정서적 자율성과 가족애의 행위로 변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작품이 <심청전>을 활용하면서도 효와 가부장제라는 유교적 가치를 변형하고, 판타지 구조와 결합하고 있음을 밝혔다.¹¹⁾ 국내에서는 민정주가 이 작품을 <심청전>의 현대적 다시쓰기로 규

9) “Axie Oh author Interview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https://www.youtube.com/watch?v=_k7FOo4n3UY, 접속일 2026.04.23.

10) Mega Lestari & Hana Farida, “An Ecofeminism Analysis of Axie Oh’s Novel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Jurnal Onoma: Pendidikan, Bahasa, dan Sastra*, Vol.11 No.4, Indonesia: Universitas Cokroaminoto Palopo, 2025, pp.4143~4151.

11) Michaela Václaviková, *The enduring legacy of The Tale of Sim Ch’ông in contemporary retellings*, Master’s thesis, Palacký University Olomouc, 2025, pp.1~59.

정하고, <심청전>의 희생과 보상 모티프가 정체성 탐색, 개인적 주체성, 성장 서사라는 현대 청소년 문학 장르 규범에 부합하도록 선택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청소년 독자층과의 공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파악했다. 또한 용궁 공간 역시 시련의 무대가 아니라 판타지 세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²⁾

이러한 연구들은 <바다에 빠진 소녀>가 한국 고전서사 <심청전>을 활용해 새롭게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선택이나 문화 혼종성을 지닌 글로컬 서사로서의 전략 방법에 주목해 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소녀>는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 돌봄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돌봄과 자신에 대한 돌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드러내며, 이는 <심청전>에 내재된 돌봄 윤리를 계승하고 확장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한 <심청전>에서와 같이 주인공이 재생을 하나 그 과정에서 조상의 돌봄을 강조하며, 가족 간의 윤리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형해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와 같은 한국 고전서사를 삽입 이야기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주목을 요한다.

한편 <바다에 빠진 소녀>의 경우, 원전으로 상정한 특정 이본을 바탕으로 창작이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작가가 한국의 특정 계열의 이본 <심청전>을 직접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번역된 텍스트와 구술 전승을 매개로 심청 서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심청전>을 처음 접한 것은 Ellen Schecter의 영어 그림책인 <Sim Chung and the River Dragon>이었으며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을 밝힌 바 있다.¹³⁾ 그런데 오윤선에 따르면, 이 책은 경판 <심청

12) 민정주, 「『바다에 빠진 소녀』에 나타난 글로컬 서사 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1~102쪽.

13) 류가영(2023), 앞의 기사; 앞의 유튜브.

전>을 바탕으로 알렌(1889)과 카펜터(1947)가 영역한 <심청전>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판 <심청전>에 존재하지 않는 서사 요소들이 추가된 변형 텍스트임이 밝혀졌다.¹⁴⁾ 따라서 <바다에 빠진 소녀>의 경우, <심청전>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경판본과 함께 향유가 널리 이루어진 완판 71장본과 비교하고자 한다.¹⁵⁾

2. <바다에 빠진 소녀>의 한국 고전서사 수용과 변용 양상

1) <심청전> 서사 구조의 수용과 변용

<바다에 빠진 소녀>는 이무기와 같은 한국의 신화적 존재를 등장인물로 활용하고, 은장도와 병풍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요소들을 배치해 한국적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 고전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심청전>을 중심 서사 구조로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최운식에 따르면 한남본, 송동본, 완판본 계열의 <심청전> 이본이 공통적으로 지닌 서사 구조를 크게 다음과 같다. '①심청의 출생 → ②심청의 성장과 효행 → ③심청의 죽음과 재생 → ④부녀 상봉과 개안 → ⑤심청이 천상계로 돌아감'이 그것이다.¹⁶⁾ 이 가운데, <바다에 빠진 소녀>는 특히

14) 오운선, 「영문 판소리동화 그림책의 번역양상 고찰」,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355-358쪽.

15) 이 글에서는 번역서를 중심으로 인용하며, 필요한 경우 원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악시오, 『바다에 빠진 소녀』, 김경미 옮김, 이분, 2023.; Axie Oh,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New York: Feiwei and Friends Book, 2025.

16) 최운식,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최동현·유영대 공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82쪽.

‘③심청의 죽음과 재생’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서사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미나는 오빠 준의 연인인 심청을 대신해 바다에 뛰어들지만 결국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는데, 이는 <심청전>에서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나 재생하는 것과 대응된다. 그러나 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당 부분 변형이 나타난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재생이 옥황상제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미나는 바닷속 세계의 저주를 해결함으로써 재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는 미나가 저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저주를 해결하는 과정이 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 미나의 연애 서사가 결합된다.

이와 함께 <심청전>의 ‘④부녀 상봉과 개안(開眼)’ 구조 역시 수용하되, 그 세부 내용은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재생 이후 심봉사와의 재회와 심봉사의 소원이었던 개안이 이루어진다면,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는 미나가 재생 이후 오빠와 재회하고, 미나와 함께 재생한 심청이 오빠와 결혼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미나가 투신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오빠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바다에 빠진 소녀>의 중심 사건과 서사 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마을에서는 매해 폭풍,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용왕의 신부가 될 여성을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데, 주인공 미나는 오빠의 여자 친구 심청을 대신해 바다에 뛰어들다.
2. 바닷속 세계에서 100년째 반복되는 용왕의 신부를 막기 위해 저주를 풀고자 하는 미나는 이 과정에서 용왕을 없애려는 세력에게 계속 공격을 받으나, 용왕을 지키는 ‘신’, 기린, 남기와 혼령인 탈, 다이의 도움을 받는다.
3. 용왕을 사랑해야 저주를 풀 수 있음을 깨달은 미나는, 바닷속 세계에 있는 동안 좋아하게 된 ‘신’을 두고 갈등하나, 결국 바닷속 세계와 인간 세계의 재회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용왕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용왕이 본래는 인간 세계의 황제이며, 진짜 용왕은 황제를 살리기 위해 혼을 황제에게 주어 용왕으로 있게 하고, 자신은 혼이 없는 ‘신’으로 지냈음을 알게 된다.

4. 미나는 용왕과 황제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소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심청과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 일 년 후, 미나는 본래의 정체로 돌아온 온전한 용왕(=‘신’)과 함께 바다로 간다.

다음으로 인물의 변형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인공이 심청이 아니라 16세 소녀 미나라는 점이다. 심청은 미나의 오빠 준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별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미나는 <심청전> 속 심청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나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오빠 준의 돌봄 속에서 성장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 속 심청과 유사한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미나가 우는 것을 할머니조차 달래지 못한 반면, 오빠 준이 미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돌봐주었다는 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¹⁷⁾ 즉 <바다에 빠진 소녀> 속 미나와 준의 관계는 곧 <심청전> 속 심청과 심봉사의 관계를 변형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심청전>에서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다면, 미나는 자신을 돌봐준 오빠를 위해 희생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대응한다. 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나는 심청을 재생시켜, 오빠 준이 심청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심청전>에서 심청이 심봉사의 소원이었던 개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같이, 투신 동기를 제공한 이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대응한다.

다음으로 시공간의 변형을 살펴보자. <바다를 빠진 소녀>의 시공간은

17) 악시 오(2023), 앞의 책, 59~60쪽.

<심청전>과는 달리 특정 지역과 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심청전>의 인신공희 모티프를 수용, 변용하는 과정에서 바닷속 세계를 수용하고 변형하고 있다. <심청전>에서 용궁은 심청이 재생을 위해 머무는 공간이었다면, <바다에 빠진 소녀>의 바닷속 세계는 보다 다양한 존재들이 지내는 세계로 묘사된다. 용왕이 머무는 공간, 용왕을 모시는 여러 신들이 머무는 공간, 혼령들이 공존하는 공간 등과 같이 확장된 세계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심청전>에서 심청이 투신한 인당수는 풍량이 심해 지나가는 상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받치던 곳이었다면,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미나가 투신하는 바다는 100년 동안,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자연 재해를 잠재우기 위해 18세의 소녀를 뽑아 용왕에게 받치는 신화가 있는 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주인공 미나의 고향 마을 앞바다로 제시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바다에 빠진 소녀>는 <심청전>의 투신과 재생, 부녀 상봉과 개안 부분을 수용해 중심 서사로 활용하면서, 이 가운데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변형하고 있다. 즉 부친을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한 효에 대한 초월적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나가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것과 자신의 감정을 위한 것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변용함으로써, 변용의 원리로 균형적 돌봄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흥부전>, <나무꾼과 선녀>, <심청전>의 삼입 이야기로의 활용과 변용

<바다에 빠진 소녀>는 <심청전>의 구조를 활용해 작품의 중심 서사를 구성할 뿐 아니라, 미나가 저주를 아직 풀지 못한 상태에서, 용왕의 혼을 받아 용왕으로 주위에서 인식하는 황제¹⁸⁾에게 들려주는 세 편의 이야기로

18) 이 글에서는 저주가 풀리기 전까지는 용왕의 혼을 받아 용왕으로 주위에서 인식하고 있는 황제를 지칭할 때는 ‘용왕’으로, 용왕의 혼이 없는 상태는 ‘신’으로 지칭하고,

한국의 고전서사를 활용한다. 이러한 삼입 이야기로는 중심 서사로 활용되는 <심청전>과 함께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가 활용되는데, 이때 이야기들 역시 수용 과정에서 변용이 일어난다.

미나가 용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 <심청전> 순으로 제시된다. 먼저 <홍부전>을 살펴보자. 미나가 들려주는 <홍부전>은 고전서사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나 마지막 부분에서 변형이 나타난다. 홍부가 부유하게 된 것을 질투한 놀부가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하고 치료해 준 후 받은 박씨로, 결국 놀부가 패가망신하는 부분까지는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나가 들려주는 <홍부전>의 결말은 잘못을 깨달은 놀부가 그간 자신이 홍부를 잘 대해 주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홍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끝내 홍부가 용서해 주고 함께 잘 살았다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홍부전> 속 형제 간의 우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홍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놀부의 두려움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황제가 이 이야기의 의미를 물어볼 때 “용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 중 누군가 잘못을 하더라도 서로 용서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나가 되뇌이는 점을 제시¹⁹⁾해, <바다에 빠진 소녀> 속 미나의 <홍부전>의 핵심 내용을 가족 간 용서로 제시한다.

<홍부전>을 들려주는 시점은 미나가 꿈을 통해 용왕에게 신부를 받치는 저주가 처음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고, 혼이 없는 상태의 용왕인 ‘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직후이다. 구체적으로 미나는 이 시점에서 오래전 용왕이 사랑하던 황제가 전쟁에서 지고 정복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간 세상에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멈추기 위해 용왕에게 신부를 받치는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뿐더러, 용왕으로 생

저주가 풀린 상태에서 용왕이 자신의 혼과 결합한 상태는 ‘온전한 용왕’으로 지칭한다.
19) 역시 오(2023), 앞의 책, 186~187쪽.

각한 이가 실은 용왕의 혼을 받은 황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자신을 지켜 주는 ‘신’이 혼령이 아닌 혼이 없는 신임을 알게 된다. 용왕과 황제의 관계는 친형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홍부전> 속 놀부와 홍부의 우애에 대응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미나가 용왕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실은 용왕의 혼을 지닌 황제라는, 즉 용왕과 황제가 가까운 관계며, 용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점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삼입 이야기인 <나무꾼과 선녀>를 살펴보자. 미나의 <나무꾼과 선녀>는 <홍부전>과 달리 한국 고전서사의 내용을 상당히 바꾸고 있다. 나무꾼이 목욕하던 막내 선녀의 옷을 숨겨 결혼한다는 설정은 동일하나, 미나의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으며, 시간이 흐른 후 나무꾼이 슬퍼하면서도 선녀에게 먼저 날개옷을 주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으로 변형된다. 작품은 나무꾼이 나이가 들고 현명해지면서 선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은 데서 이와 같은 행동이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²⁰⁾ 주지하다시피 고전서사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나무꾼이 결혼에 대한 욕망으로 날개옷을 훔쳐 결혼에 이르고, 대개 선녀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아이 세 명을 낳은 후에야 날개옷을 보여주라는 금기가 있으며, 선녀의 의지로 날개옷을 찾은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해 보면 미나의 이야기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것의 기본 바탕이 진실됨이며, 가족 관계 안에서 자신의 욕망 추구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나가 용왕의 요청으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점에서도 미나는 아직 용왕과 황제의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이나, 대신 미나와 ‘신’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후이다. 이때 미나의 이야기는 용왕뿐 아니

20) 악시 오, 앞의 책, 240~241쪽.

라 ‘신’ 역시 곁에서 함께 듣는 것으로 제시된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주를 풀기 위해 ‘용왕의 신부’라는 선택을 미나가 할 때, 미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지닌 ‘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나가 용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중심 서사로도 활용되는 <심청전>이다. 미나가 들려주는 <심청전>에서도 심봉사가 맹인인 설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심청의 투신 동기는 변형된다. 미나의 <심청전>에서 심청은 마을에 닥친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제물로 나서는데, 그 이유는 공양미 삼백 석이 아닌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한 심봉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변형된다. 때문에 효심을 높이 산 용왕에 의해 심청이 재생한 후에 심봉사와 재회하더라도, 미나의 이야기에는 심봉사의 개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심봉사가 심청과 재회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마다하고 심청만을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를 고전서사 <심청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이 인신공양의 제물이라는 설정은 유지하면서도 그 동기를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의 가족 돌봄으로 변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돌봄마저도 뒤로할 정도로 심봉사가 심청을 찾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관계에서 부녀 간의 가족애를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나가 용왕에게 <심청전>을 들려주는 시점은 미나가 저주를 푸는 도중 결국 용왕의 신부가 되는 것을 수락한 직후이다. ‘신’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면서 저주를 풀 방법을 찾던 미나는 재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용왕이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을 청하자, 결국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용왕의 신부가 되기로 한다. 이때 미나의 <심청전>을 들은 용왕은 삼입 이야기 속 용왕처럼 바닷속 세계에 온 심청을 재생시킬 힘이 만약 있다면 돌려보내겠다고 함으로써, 이 삼입 이야기는 미나가 저주를 풀고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될 경우 용왕이나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바다에 빠진 소녀>는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 <심청전>을 삽입 이야기로 수용해, 작품의 전체 서사에 복선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의 경우 가족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윤리를 부각하고, <심청전>의 경우 투신의 이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가족애를 부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홍부전>과 <나무꾼과 선녀>의 변용을 통해서, 변용의 원리로 가족 관계를 지속하는데 고려해야 할 관계의 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바다에 빠진 소녀>의 <심청전> 서사 변용의 특징

1) 재생 방식 : 효에 대한 보상에서 가족 및 공동체, 자기 돌봄의 균형을 통한 재생

여기서는 <바다에 빠진 소녀>가 <심청전>을 수용 및 변용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활용한 재생 대목을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청전>과 <바다에 빠진 소녀> 모두, 주인공 심청과 미나가 투신하는 동기는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와 오빠, 즉 가족을 위한 투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은 두 작품이 뚜렷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심청전>에서 심청의 재생은 효행에 대한 초월적 보상으로 제시된다.

잇씨의 심낭자는 창희 중의 몸이 드러 죽은 줄노 알엇더니, 오운이 영농하고 이희이 축비터니 옥저성 말근 소리 은근이 들이거날 몸을 머물러 주저할 계 옥 황상제 호교회사 인당수 용왕과 사히 용왕 지부왕게 낫낫치 호교하시되 명일의 출천 효녀 심청이가 그 곳을 갈거스니 몸의 물 흔 점 못잔케 호되 만일 모시기를 실수하면 사히 용왕은 천벌을 주고 지부왕은 손도를 줄 거스니 수정궁으로 모

셔드려 삼 년 공께 단장하여 세상으로 환송하라 <완판 71장본>²¹⁾

석가세존이 옥제귀 듀왈(중략) 금싱 효의를 도당치 아니호오미 텃도의 공경
훈 처분이 아니옵고 그 정경이 참혹호오미 폐하는 우로지턱을 나리오스 선 불
선을 명명히 분간호쇼셔(중략) 옥데 윤희호시기로 니 또 청듀호되 규성의 죄를
스호시니 신이 호호 저로 더부러 전싱 부너지정이 잇습는지라 슈일 후면 규성
이 인단소의셔 명을 끈칠지라 그 위급호를 아니 구치 못호리니 맞당히 구호여
일야를 머물너 인간으로 보니여지이다 훈즉 옥데 호호시미 너를 다려왔느니
<경판 24장본>²²⁾

완판본에서는 옥황상제가 심청의 효성을 인정해 용왕에게 3년 동안 심
청을 잘 보살피다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게 한다. 또한 경판본에서는
석가세존이 심청의 효행을 옥황상제에게 알리고,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청
해 용궁에서 심청이 하루를 머문 후 재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생을 요
청하는 존재나 용궁 체류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완판본이나 경판본 모
두 심청의 재생은 효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미나의 재생은 미나가 오빠를 위하는 마
음으로 투신했지만, 남매간의 우애에 대한 보상, 즉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
으로 재생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이 작품에서는 자기 돌봄, 가족 돌봄,
공동체 돌봄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뤘을 때, 미나
의 재생이 이뤄지도록 한다.

먼저 미나의 투신은 오빠를 돌본다는 것에서 가족 돌봄으로 볼 수 있다.
미나의 투신은, 연인 심청이 바다에 투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에 탄 오빠
준을 용의 공격에서 구하기 위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의 가족

21) 정하영 역주, 『심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52쪽.

22) 정하영 역주(1995), 위의 책, 42~44쪽.

돌봄은 미나 자신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모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돌봄을 우선하는 것, 즉 우애에 대한 보상으로 재생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이에 대해 작품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으로 한 선택에 대한 작품의 시선도 유사하다. 미나는 투신 후 바로 죽지 않는 대신 30일 이내에 인간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 시간 동안 미나는 인신 공양이라는 저주를 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미나에게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미나 자신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는 과정을 두 차례 제시한다. 이때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으로 한 첫 번째 선택은 궁극적으로 저주를 푸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작품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나의 마을에서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막고자 매해 18세 소녀를 용왕의 신부로 받치는데, 진정한 용왕의 신부만이 이 재해를 온전히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 심청을 대신해 투신한 미나는 저주를 풀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용왕을 죽이려는 바닷속 세계의 다른 존재들의 위협으로 인해 바닷속 세계와 인간 세계가 재해와 혼란으로 고통받자, 진정한 용왕의 신부가 되겠다는 선택을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나는 용왕이 아닌 용왕을 모시는 신하 ‘신’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기에, 이 선택은 미나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설정이 된다. 즉 미나가 ‘신’과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용왕의 신부가 되는 선택 사이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때 미나는 바닷속 세계와 인간 세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용왕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다.

기실 미나가 저주를 풀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용왕의 신부’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동시에 이 일은 마을에 닥친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나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나가 저주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바닷

속 세계에도 심각한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곳이 다양한 신과 혼령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곧 미나가 ‘용왕의 신부’가 되려는 것은 바닷속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용왕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선택은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는 것²³⁾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미나가 ‘신’에 대한 감정을 뒤로 하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한 이 선택 역시도 저주를 푸는 최종적 해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작품이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나가 저주를 풀고 재생하는 것은 공동체와 자신을 모두 고려한 선택을 취했을 때이다. 작품은 재차 반복해 공동체와 자신 중 누구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용왕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미나는 바닷속 세계에 온 심청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저주 풀기의 온전한 방법을 이해하게 되며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재해가 더 심해지자 마을에서 바다에 투신하게 한 심청을 만난 미나는 오빠를 위해 심청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곧 미나에게 공동체와 미나의 감정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재차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용왕의 저주를 푸는 본질은 용왕의 혼을 본래 자리로 돌리

23) 이해진에 따르면, 공동체 돌봄은 지역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간의 유대에 기초해 보살핌을 주고받는 형태의 돌봄을 말하며, 돌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이해진, 「판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헌학연구』 48, 한국고전문헌학회, 2024, 130~133쪽.; 이 글에서는 <바다에 빠진 소녀>에 나타난 공동체 돌봄은 지역 사회를 우선으로 하되 미나가 살던 마을뿐 아니라 미나가 머물고 있는 바닷속 세계에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혈연관계나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대상을 향한 돌봄을 포괄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바닷속 세계에서 미나와 한 마을에 살았던 나리 언니 등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을 공동체 돌봄이 바닷속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는 것이다. 100년 전, 황제는 전쟁 중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 자신을 아끼던 용왕에게 살려달라고 청하고, 용왕은 자신의 혼을 황제에게 주고 바닷속 세계로 데려온 후, 용왕 자신은 혼은 잃은 상태로 용왕의 신하 ‘신’이 되어 지내는 데서, 용왕과 황제의 혼란, 즉 인간 세계와 바닷속 세계의 혼란이 시작되어 저주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주를 푸는 것은 용왕의 혼과 황제를 본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인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저주를 풀면 심청뿐만 아니라 바닷속 세계에 들어온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인간인 미나 역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그에 따라 ‘신’과의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미나의 재생이 가능하도록 저주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미나의 자기 돌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남기민에 따르면 자기 돌봄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로, 나에게 관심을 쏟고 나에게 대해 알기 위해 몰두하는 행위로, 자기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⁴⁾ 미나는 바닷속 세계에 머무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자기 돌봄을 실천한다. 미나는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면서 저주를 푸는 과정에서 용왕을 보호하려는 ‘신’과 가까워지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인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이 자신을 위해 종이배를 가져다 놓은 것을 보며 설레는 기분을 가지기도 하며, ‘신’이 용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혹시 용왕과 상관없이 자신을 지키고자 한 것은 아닌가 상상해 보기도 하며 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나란히 걷는 신과 나 사이에 부드러운 침묵이 감돈다. 점점 더 나에게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느낌이다. (중략) 신을 둘러싼 무언가가 나를 더 용감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을 것처럼²⁵⁾

24) 남기민(2022), 앞의 논문, 154~155쪽.

Though Shin and I walk in silence, it's a companionable sort. I feel more myself than I have all week. (……) Something about him makes me feel braver, like I can be the person he believes me to be.²⁶⁾

위의 대목은 미나가 신과 산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부분으로 자기 인식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미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 돌봄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바다에 빠진 소녀〉는 가족, 공동체, 자기 자신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우선하는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미나는 용왕의 혼과 황제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저주를 해소하고, 바닷속 세계와 인간 세계의 인연을 가져오며, 심청과 자신은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저주를 푸는 순간에 ‘신’에게 1년 후 자신을 찾아올 것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행동 역시 한다. 즉 미나는 용왕의 혼과 황제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돌봄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과의 앞으로의 일을 기약함으로써 자신의 삶 역시 돌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돌봄과 자기에 대한 돌봄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 작품은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 욕망을 앞세운 자기 돌봄을 경계하는 시선도 드러낸다. 기실 저주가 시작된 것은 황제의 살고 싶다는 욕망을 용왕이 들어주면서부터이기 때문이다.²⁷⁾ 이를 들어주기 위

25) 약시 오(2023), 앞의 책, 176쪽.

26) Axie Oh(2025), op.cit. p.153.

27) 선행연구에서는 황제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과 싸우다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황제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것으로 보고, 이 작품의 구조를 희생과 구원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패턴을 띤 작품으로 보았다. 민정주(2025), 앞의 논문, 69

해 용왕은 자신의 혼을 황제에게 줌으로써, 바닷속 세계와 인간 세계를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일을 저버리게 되는데, 이는 곧 용왕이 공동체 돌봄을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저주가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 욕망을 앞세운 돌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시선을 보인다.

2) 조력자 : 옥황상제 및 용왕에서 조상으로의 변화

<바다에 빠진 소녀>가 <심청전>의 투신과 재생 구조를 수용, 변용하는 과정에 나타난 또 하나 두드러진 변화는 조력자 설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청전>에서 심청의 재생은 효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옥황상제와 용왕이다. 옥황상제는 심청의 재생을 승인하며, 용왕은 심청이 바다에 있는 동안 귀하게 대접하며 잘 돌보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미나도 투신 후 재생에 이르는 과정 동안 바닷속 세계에서 지낸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는 이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나의 재생은 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승인한 옥황상제의 조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작품의 용왕은 <심청전>과 같은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용왕을 해치려는 이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미나를 구해주는 조력 과정이 한 번 등장하나, 용왕은 조력자보다는 미나가 저주를 풀어야 할 대상이자 연애 상대인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대신 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용왕을 모시

~71쪽; 이 글에서는 황제의 행위는 죽음 앞에서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을 발현한 것으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의 연장성이 아닌 자기 욕망을 앞세운 돌봄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이 작품의 구조가 희생과 구원의 패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돌봄 윤리의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는 신하들인 ‘신’, 남기, 기린이나 같은 마을에서 살다 먼저 죽은 나리 언니나 먼저 용왕의 신부로 제물이 되었던 헤리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조력자는 미나의 조상들이다. <바다에 빠진 소녀>는 미나가 바닷속 세계에 있는 동안 고조할머니와 할아버지 혼령을 통해 미나를 돕게 함으로써 조력자로서 조상의 역할을 부각한다. 서사 초반부터 미나 곁에는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탈, 다이, 미키라는 혼령들이 등장한다. 탈은 나이를 알 수 없게 가면을 쓴 여자 아이이며, 다이는 어린 소년, 미키는 다이가 업고 다니는 아기 혼령으로 묘사된다.²⁸⁾ 그러나 서사 말미에서 이들은 각각 미나의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큰 조카의 혼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를 통해 작품이 조력자의 역할에 혈연 공동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조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미나를 조력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이들은 미나가 바닷속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나는 바닷속 세계에 들어오면서 용왕을 지키고자 하는 ‘신’, 기린 등에게 혼을 빼앗기고 목소리를 잃게 된다. 이때 고조할머니와 할아버지 혼령이 나타나 미나를 바닷속 세계에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이고 혼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끈다. 이후에도 미나는 다른 이를 따돌리는 등의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은연중 나타나 도움을 주는데, 이 과정에서 미나는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고조할머니 혼령의 손길과 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걱정과 다정함을 느끼는 것으로 제시된다.²⁹⁾

다음으로는 이들은 미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나가 바다에 투신할 때 가지고 온 은장도는 본래 고조할머니의 은장도로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것으로 소개되는데³⁰⁾, 미나는 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

28) 악시 오(2023), 앞의 책, 61쪽.

29) 악시 오(2023), 앞의 책, 144쪽.

30) 악시 오(2023), 앞의 책, 50~51쪽.

로도 낯선 세계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든든함을 느끼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실제로 더 나아가 미나가 바닷속 세계에서 용왕을 해치고자 하는 존재들이 일으킨 공격에서 납치당할 위기에 처할 때, 할아버지 혼령이 미나를 감싸 미나를 구하며, 미나에게 쏜 화살을 대신 맞아 미나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구해낸다.

마지막으로는 조상들은 저주를 해결할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미나는 심청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다가 혼령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조상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다. 미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자신을 도와주던 탈, 다이, 미키가 자신의 혈연임을 알게 되는데, 심청을 돌려보낼 방법을 질문하던 중 고조할머니 혼령으로부터 용의 여의주에 소원을 빌어야 하며, 용과 용왕이 하나라는 사실, 용왕이 이전에 사랑했던 이가 황제라는 점을 들으면서³¹⁾, 용왕과 황제의 혼을 본래 위치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나는 저주를 풀게 된다. 이처럼 <심청전>의 투신과 재생 대목에서 초월적 존재가 담당하던 조력자 역할을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는 조상과 가족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4. <바다에 빠진 소녀>의 한국 고전서사 변용의 의미

1) <심청전> 돌봄 윤리 계승과 <심청전> 활용 현대 콘텐츠로서의 의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 빠진 소녀>는 <심청전>에 나타난 투신과 재생 서사를 수용 및 변용하면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효라는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빠를 비롯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31) 악시 오(2023), 앞의 책, 317쪽.

균형을 갖추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곧 가족 돌봄과 공동체 돌봄, 그리고 자기 돌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다에 빠진 소녀〉가 수용한 한국 고전서사 〈심청전〉은 1972년에 이를 콘텐츠화 한 영화 〈효녀 심청〉이나 2023년에 공연으로 올려진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효녀 심청〉에서처럼 “효녀 심청”을 제목으로 내세울 정도로 효를 다룬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그간 〈심청전〉 연구도 이 작품에 나타난 효의 성격과 의미를 당대 사회상 및 향유층을 고려해 규명하는 방향으로 상당수 성과가 축적되었다.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심청의 효를 심청의 자발적 선택보다는 조선 후기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작품의 효를 질병, 가난, 재해와 같은 현실 상황에서 여러 의미의 희생을 보여준 이야기³²⁾, 이념 공동체에 의한 살인 이야기³³⁾, 도덕적 딜레마를 두고 효라는 윤리 가치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심청의 내면을 은폐한 이야기³⁴⁾ 등과 같이 파악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청전〉 속 효를 둘러싼 담론을 당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심청전〉 속 심청의 효행을 ‘돌봄’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 행위를 자발적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심청전〉 속 돌봄의 양상을 심청의 효행을 중심으로, 가족 돌봄, 자기 돌봄, 공동체 돌봄 순으로 파악하면서, 어떤 상황에

32) 정하영, 「심청전의 제재적 근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41~144쪽.

33)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학회, 2010, 35~60쪽.

34)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쪽.

서도 심청이 결정의 주체였음을 밝힌 연구³⁵⁾, <심청전> 속 뽕덕어미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이 행하는 돌봄을 사적 윤리 영역에서 가족 간 돌봄과 공적 정의 영역에서 마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행하는 돌봄으로 파악하면서, 심청과 심학규가 돌봄의 상호 의존성을 띤 관계임을 밝힌 연구³⁶⁾, <홍부전>과 함께 <심청전> 속 돌봄을 살피면서, 이 작품이 가족 돌봄과 공동체 돌봄을 보여주는 가운데 심청의 마음을 존중하는 장승상 부인의 모습을 통해 돌봄 윤리에서 강조하는 돌봄 수혜자에 대한 뛰어난 공감 능력이라는 자질을 갖춘 이를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 돌봄에서 필요한 구성원 간의 소통보다 시혜적 돌봄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³⁷⁾ 등이 그 예이다.

이 글에서 주목한 <심청전>의 투신과 재생 구조를 수용, 변용하고 있는 <바다에 빠진 소녀>는 투신의 동기와 재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가족, 공동체, 자신에 대한 돌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심청전> 속 돌봄의 중요성을 보여준 작품의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기민에 따르면 돌봄이란 의존성을 지닌 대상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³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돌봄에 대한 정의는 트론토와 피셔의 정의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돌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돌봄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를

35) 남기민, 「돌봄 윤리로 읽는 <심청전>」, 『고소설연구』 53, 한국고소설학회, 2022, 137~166쪽.

36) 백지민, 「<심청전>에 나타난 돌봄의 제 양상」, 『한국고전연구』 6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223-252쪽.

37) 이해진, 「관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121-150쪽.

38) 남기민(2022), 앞의 논문, 141쪽.

수반하는 실질적인 인간의 행위로 구현된다고 보았다.³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미나가 수행하는 선택 역시 돌봄의 실천으로 읽을 수 있다.

이때 〈바다에 빠진 소녀〉는 자기 돌봄, 가족 돌봄, 공동체 돌봄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함을 미나의 재생이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심청전〉에서 나타나는 돌봄에 대한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다에 빠진 소녀〉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빠를 구하기 위해 투신했던 가족 돌봄은 〈심청전〉 속 공양미 삼백 석을 위해 투신했던 심청의 가족 돌봄과 유사하다. 〈바다에 빠진 소녀〉는 이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심청전〉 속 심청의 투신이 돌봄 윤리에 기반해 읽을 때 자발적 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을 배제한 가족 돌봄은 이상적인 돌봄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유사한 지점이다.⁴⁰⁾

그런데 〈바다에 빠진 소녀〉는 〈심청전〉 속 돌봄 윤리를 계승하면서도 돌봄 윤리 과정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 남기민에 따르면 〈심청전〉 속 돌봄 윤리는 투신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 돌봄 이후, 용궁에서 심청이 아버지와 분리 후 자기 돌봄을 이룬 후, 이를 바탕으로 재생 이후 사회적 돌봄까지 확장된 돌봄을 실현하는 상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밝혀졌다.⁴¹⁾ 즉, 〈심청전〉은 돌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가족 돌봄, 자기 돌봄, 사회적 돌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바다에 빠진 소녀〉는 돌봄의 중요성과 가치를 드러내면서도,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9) 남기민, 「한국고전서사에 나타난 돌봄의 양상과 의미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6~17쪽.

40) 남기민(2022), 앞의 논문, 137~138쪽.

41) 남기민(2022), 앞의 논문, 137~138쪽.

하나의 선택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돌봄에 있어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심청전>을 활용한 최근 현대 콘텐츠에서는 돌봄 윤리를 계승 하면서 그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바다에 빠진 소녀>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발견된다. 웹툰 <그녀의 심청>이나 웹툰 <삼작미인가>에 서와 같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심청전>을 재맥락화한 작품들⁴²⁾도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돌봄 윤리의 측면을 계승한 웹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나 소설 <깊고 푸른>과 같은 작품들의 창작이 그 예이다.

이채은은 2017~2018년에 웹소설로, 2020~2023년에 웹툰으로 발표된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를 대상으로, 이 작품이 차원 이동 구조와 <심청전>을 결합해, 이세계에서 심청이 갖춘 돌봄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심청전>이 지닌 전통적 미덕과 가치를 잘 계승한 작품이라는 점과, 이 작품에 나타난 공적 돌봄은 <심청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사회적 영역의 돌봄이라는 점을 밝혔다.⁴³⁾ 이를 <바다에 빠진 소녀>와 비교해 보면 두 작품 모두 <심청전> 속 돌봄 윤리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에서 심청은 차원 이동을 한 후 음식을 만들고 던전 속 몬스터들의 일상을 돌보는 등 돌봄의 구체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⁴⁴⁾, <바다에 빠진 소녀>의 경우 투신과 재생 구조를 수용하

42) 김선현, 「웹툰에 나타난 심청 서사의 재맥락화 - 웹툰 <그녀의 심청>과 <삼작미인가>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65~93쪽.

43) 이채은, 「'차원이동물'의 장르관습을 활용한 <심청전>의 각색과 그 의미 - 웹서사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86, 우리문학회, 2025, 39~41쪽, 60~62쪽.

44) 이채은(2025), 위의 논문, 53~56쪽.

면서 재생이 이뤄지는 방식에서 돌봄 대상에 대한 선택을 중요하게 부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조리라는 <심청전>을 재해석한 두 편의 작품, 2017년에 발표된 웹툰 <바리공주> 속 ‘효녀 심청’ 편과 2022년에 출간된 소설 <깊고 푸른>을 대상으로 두 작품이 ‘효’와 ‘상호 돌봄’을 함께 그려낸 것을 지적하였다. 이 중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상호 교류하며 돌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깊고 푸른>의 경우, 돌봄을 개인적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한 웹툰 <바리 공주> 속 ‘효녀 심청’과 달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그려냄으로써⁴⁵⁾ <심청전>을 재해석한 <깊고 푸른>의 경우 올바른 돌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바다에 빠진 소녀>를 비교해 본다면, <바다에 빠진 소녀> 속에서 용왕의 개인적으로 아끼던 황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혼을 내줌으로써 저주가 시작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인적 욕망을 앞세운 돌봄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은 효 서사를 해체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돌봄의 방식과 관계 윤리를 사유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바다에 빠진 소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 돌봄 및 관계 윤리 강조와 동시대적 디아스포라 콘텐츠로서의 의미

또한 <바다에 빠진 소녀>는 <심청전>을 수용 및 변용하면서 가족 돌봄과 가족 간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윤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45) 조리라, 「상호 돌봄과 공동체 화합의 관점이 반영된 <심청전>의 재해석 - 웹툰 <바리공주>(84-89화 ‘효녀 심청’편)와 소설 「깊고 푸른」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87, 우리문화회, 2025, 103~104쪽.

다. 이러한 점은 <심청전>에서 심청과 심학규에게서 찾아지는 가족애, 가족 돌봄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확장한 사고라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 빠진 소녀>는 조력자 역할 변화를 통해 가족 돌봄을 부각한다. 미나의 성장 과정에서 오빠 준과 할머니의 보살핌이 있었음이 반복적으로 제시될뿐더러, 미나가 바닷속 세계에 머무는 동안 고모할머니와 할아버지 혼령이 미나의 바닷속 세계의 적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해주고, 저주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가족 돌봄이 살아생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연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이 작품은 혈연 공동체의 돌봄의 지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미나를 도와주는 고모할머니와 할아버지 혼령은 기실 죽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미나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 조상과 미나가 연결된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는 할아버지 혼령인 다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혼령들은 그 모습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혼령인 다이가 어린 소년의 모습을 택한 것은 그 손녀 혼령인 미키를 배려해서로 제시되며, 다이는 늘 아기 혼령 미키를 업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죽음 이후에도 혈연 공동체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작품이 혈연 공동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나가 용왕에게 들려주는 한국의 고전서사를 변형한 삼입 이야기들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윤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미나가 들려주는 <홍부전>은 고전서사의 <홍부전>이 우애를 강조한 것에 더해, 우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점과 가족 간에는 잘못된 것을 용서로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전서사에서 <홍부전>은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한 작품이다. 결말 방식과 관련해서 이 해진은 <홍부전>은 결말이 향유되는 과정에서 놀부 징치 후 그를 배제하

거나 포용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기되었으며, 포용하는 이본들의 경우 흥부를 찾아온 놀부를 흥부가 용서하고 포용하는 방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조선후기 놀부 같은 인간형이 많아진 현실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은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음⁴⁶⁾을 밝혔다. 이러한 점과 비교했을 때, 미나의 <흥부전>은 용서에 앞서 사과를 구하는 놀부의 자책과 두려움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가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서 용서와 함께 잘못된 이가 용서를 구하는데 갖는 두려움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포용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 관계를 지속하는 데 배려와 윤리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은 미나가 변형한 <나무꾼과 선녀>에서도 확인된다. 미나의 <나무꾼과 선녀>에서 나무꾼은 날개옷을 훔쳐 혼인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스스로 옷을 건네 선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으로 제시됨으로써,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데 기실 필요한 것이 역설적으로 진실됨과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점을 드러낸다. 김정애는 고전서사 <나무꾼과 선녀>의 여러 이본들의 결말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했는데, 각편 43편을 결말에 따라 크게 4개의 유형, 선녀가 날개옷을 보자마자 승천하는 것, 나무꾼이 선녀를 따라 승천하지만 지상에 다시 내려오면서 선녀와 이별하는 것, 나무꾼이 승천해 옥황상제가 제시한 시험에 통과하나 이 역시 나무꾼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선녀와 이별하는 것, 선녀를 따라 천상에 오른 후 옥황상제의 시험을 쥐의 도움으로 통과해 선녀와 함께 사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나무꾼과 선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결말의 경우도 쥐의 보은으로 가능한 것으로 기실 결말이 미완인 것으로 보면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결말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무꾼과 선녀가 이별할 수

46) 이해진, 「풍요와 화목의 관점에서 본 <흥부전>의 현재적 가치」, 『국문학연구』 47, 국문학회, 2023, 60~63쪽.

밖에 없는 운명임을 드러내거나 내포한 작품으로, 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는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밝혔다.⁴⁷⁾ 이러한 점과 비교해 볼 때, <바다에 빠진 소녀> 속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고전서사 <나무꾼과 선녀>가 지닌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 간의 용서, 상대에 대한 배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의 문제로 이야기를 변형하는 것을 통해 이 작품은 삽입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족 관계의 중요성과 이를 지속하게 하는 관계 윤리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바다에 빠진 소녀>는 서사의 해결 방식에서 조상을 핵심 조력자로 부각하고, 삽입 이야기 차원에서 가족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윤리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이 디아스포라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과 연결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의 분단이나 이산을 뜻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는 최근에는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⁴⁸⁾ 또한 디아스포라 문학으로는 자의적/타의적으로 조국 바깥으로 이민/이주해 간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삶, 타자와의 투쟁, ‘한’의 정서와 자기 정체성을 서사화한 기록물을 다루며, 공통적인 역사·문화적 지점과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천착한다.⁴⁹⁾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계 미국인 2세인 작가가 한국의 고전

47) 김정애, 「<나무꾼과 선녀>의 결말 양상에 대한 문학치료적 해석의 의의」, 『문학치료 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28~257쪽.

48) 정성호,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한국인구학』 31(3), 한국인구학회, 2008, 107~108쪽.

49)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16쪽.(김환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 북미(캐나다, 미국)의 코리안 문학과 재일코리안 문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09, 한국일본학회, 2016, 75쪽에서 재인용 및 인용.)

서사를 중심 서사 및 삽입 서사로 활용해 창작한 <바다에 빠진 소녀>는 작가의 정체성 및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것과 관련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산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나 넓은 범주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심청전>의 디아스포라 콘텐츠로의 확장은 줄리아 류의 광고 <심청전 Dive 편>에서도 발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작품의 경우 <심청전>의 현대적 재현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재미 교포 3세로서 경제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통해 접한 <심청전>을 활용해 새로운 삶의 주체가 되고자 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⁵⁰⁾ 이와 비교해 볼 때 <바다에 빠진 소녀>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 작가인 줄리아 류가 <심청전>을 활용해 만든 <다이브>에 비해, 주인공 미나의 자기 돌봄도 드러내는 동시에, <심청전>의 돌봄 윤리를 계승하며, 가족 돌봄과 혈연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우, 대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와 동시에 최근의 디아스포라 콘텐츠에서는 민족 서사를 강조하는 모습이나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국계 미국인 2세 작가인 태 켈러(Tae Keller)가 2020년에 발표한 소설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 역시 한국의 고전 서사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다. 장희동은 이 작품에서 한국의 고전서사는 주인공 릴리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혈연 공동체 역시 디아스포라적 삶 속에서 위안과 치유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⁵¹⁾ 또한 이민경은 영화 <미나

50) 신호람(2025), 앞의 논문, 81~82쪽.

51) 장희동, 「문화, 혈연, 정신 :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 속의 공동체 서사」, 『한민족문화

리>와 소설 <호랑이를 뒹에 가두면>이 모두 가족 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가족 중심주의를 강조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민 3세대인 주인공이 할머니와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임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돌봄 과정은 한국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일방적 돌봄이 아니라 손자 세대 인물의 디아스포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는 상호 돌봄임을 밝혔다.⁵²⁾ 이를 고려할 때, 『바다에 빠진 소녀』가 한국 고전서사를 수용·변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조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단순한 가족애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디아스포라 콘텐츠에서 전통 서사를 통해 문화적 뿌리를 확인하고, 혈연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조상과 그들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미나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와 신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미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신화를 “자신의 피이자 숨결”이라고 말하며⁵³⁾, 바닷속 세계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버티게 해주는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점은 민족의 서사가 미나를 구성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이 국내에서 창작된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한국 고전서사를 활용해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청전>

연구』 88, 한민족문화학회, 2024, 197~198쪽, 203~208쪽.

52) 이민경, 「이민자 서사에 나타난 세대 간 문화적 돌봄 양상 분석 연구」, 『대중서사연구』 30(3), 한국대중서사학회, 2024, 435~436쪽.

53)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내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지만, 친숙한 이야기와 신화라면 내가 다룰 수 있다. 이야기와 신화는 내 피이자 숨결이다.” 약시 오(2023), 앞의 책, 38쪽.

이 지닌 가족 돌봄의 가치를 디아스포라적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드러냄으로써, 〈심청전〉 서사가 지닌 확장성과 현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결론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공양미 300석을 구하고자 인당수에 투신한 심청의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향유되어 온 대표적 이야기이다. 230여 종의 이본이 현재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도 조선시대에도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광고, 드라마, 발레,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바다에 빠진 소녀〉는 이러한 〈심청전〉을 현대 콘텐츠로 재구성한 한 사례이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 2세 작가의 창작으로,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바다에 빠진 소녀〉가 〈심청전〉을 비롯한 한국 고전 서사를 수용하고 변용한 방식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바다에 빠진 소녀〉는 주인공을 심청이 아닌 미나라는 새로운 인물로 설정하고, 〈심청전〉의 출생, 성장, 투신과 재생, 재회와 개안, 천상계로의 이동 서사 중 ‘투신과 재생’ 부분을 적극 확대해 서사를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심청전〉에서 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재생이 아닌 주인공이 저주를 풀어나가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을 통해 재생이 이뤄지게 하고, 이를 조상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도록 변용하였다. 또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들려주는 삽입 이야기로 〈홍부전〉, 〈나무꾼과 선녀〉, 〈심청전〉을 수용하면서도, 이 역시 가족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의 문제를 보다 드러내는 쪽으로 변용했다.

이러한 변용은 이 작품이 <심청전>이 지닌 돌봄 윤리에 대한 인식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돌봄과 자기 돌봄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돌봄이 아닌, 균형을 갖춘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전 서사 역시 가족의 유지를 위한 윤리를 생각하게 하는 점을 통해 디아스포라적 맥락에서 혈연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구성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다른 한국계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심청전> 및 고전 서사 활용 방식을 섬세히 비교해 본다면, 디아스포라 콘텐츠 속에서 형상화된 <심청전> 및 한국 고전 서사 활용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자료

악시 오, 『바다에 빠진 소녀』, 김경미 옮김, 이봄, 2023, 1~365쪽.

Oh, Axie,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New York: Feiwel and Friends Book, 2025, pp.1~325.

정하영 역주, 『심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401쪽.

2. 논문 및 단행본

김선현, 「웹툰에 나타난 심청 서사의 재맥락화 - 웹툰 <그녀의 심청>과 <삼작미인가>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2, 65~93쪽.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의 계열과 전승시기 연구」, 『판소리연구』 11, 판소리학회, 2000, 161~195쪽.

김정애, 「<나무꾼과 선녀>의 결말 양상에 대한 문학치료적 해석의 의의」, 『문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01~233쪽.

김환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 북미(캐나다, 미국)의 코리안 문학과 재일코리안 문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09, 한국일본학회, 2016, 73~112쪽.

남기민, 「돌봄 윤리로 읽는 <심청전>」, 『고소설연구』 53, 한국고소설학회, 2022, 137~166쪽.

_____, 「한국고전서사에 나타난 돌봄의 양상과 의미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86쪽.

민정주, 「『바다에 빠진 소녀』에 나타난 글로컬 서사 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1~102쪽.

백지민, 「<심청전>에 나타난 돌봄의 재 양상」, 『한국고전연구』 6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223~252쪽.

신호림, 「<심청전>의 광고 재현과 의미 : LG gram 360 광고를 사례로」, 『판소리연구』 60, 판소리학회, 2025, 71~103쪽.

오윤선, 「영문 판소리동화 그림책의 번역양상 고찰」,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347~377쪽.

이민경, 「이민자 서사에 나타난 세대 간 문화적 돌봄 양상 분석 연구」, 『대중서사연구』 30(3), 한국대중서사학회, 2024, 435~468쪽.

- 이상현, 「물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5~456쪽.
-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35~60쪽.
- 이채은, 「'차원이동물'의 장르관습을 활용한 <심청전>의 각색과 그 의미 - 웹서사 <용왕님의 세프가 되었습니다>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86, 우리문학회, 2025, 35~67쪽.
- 이해진, 「풍요와 화목의 관점에서 본 <홍부전>의 현재적 가치」, 『국문학연구』 47, 국문학회, 2023, 45~74쪽.
- 장정훈, 「이민자 의식과 토박이 의식 - 미국 소수민족 소설을 중심으로」, 동인, 2020, 1~328쪽.
- 장희동, 「문화, 혈연, 정신 : 『호랑이를 닮아 가두면』 속의 공동체 서사」, 『한민족문화연구』 88, 한민족문화학회, 2024, 191~220쪽.
- 정성호,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한국인구학』 31(3), 한국인구학회, 2008, 107~130쪽.
- 정하영, 「심청전의 제재적 근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150쪽.
- 정혜경, 「고전소설 활용 영화의 제작 흐름과 특징 - 1920~2020년대 영화사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2, 63~126쪽.
- 조규익, 「구소련 고려극장에서 불린 우리말 노래들의 성격과 주제의식」, 『온지논총』 35, 온지학회, 2013, 205~238쪽.
- 조리라, 「상호 돌봄과 공동체 화합의 관점이 반영된 <심청전>의 재해석 - 웹툰 <바리공주>(84-89화 '효녀 심청'편)와 소설 「깊고 푸른」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87, 우리문학회, 2025, 103~127쪽.
-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쪽.
- 최운식,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최동현·유영대 공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77~92쪽.
- Lestari, Mega & Farida, Hana, "An Ecofeminism Analysis of Axie Oh's Novel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Jurnal Onoma: Pendidikan, Bahasa, dan Sastra, Vol.11 No.4, Indonesia: Universitas Cokroaminoto Palopo, 2025, pp.4143~4151.
- Václavíková, Michaela, The enduring legacy of The Tale of Sim Ch'öng in

contemporary retellings, Master's thesis, Palacký University Olomouc, 2025, pp.1~59.

3. 기타

류가영, 「한국에 대한 판타지로 쓴 소설 #악시 오 #바다에 빠진 소녀」, 『VOGUE E』, 2023.11.06., <https://www.vogue.co.kr/2023/11/06/%ED%95%9C%EA%B5%AD%EC%97%90-%EB%8C%80%ED%95%9C-%ED%8C%90%ED%83%80%EC%A7%80%EB%A1%9C-%EC%93%B4-%EC%86%8C%EC%84%A4-%EC%95%85%EC%8B%9C-%EC%98%A4-%EB%B0%94%EB%8B%A4%EC%97%90-%EB%B9%A0%EC%A7%84/>, 접속일 2026.04.23.

“『바다에 빠진 소녀』”, <https://series.naver.com/ebook/detail.series?productNo=9936447>, 검색일 2026.03.22.

“Axie Oh author Interview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https://www.youtube.com/watch?v=_k7FOo4n3UY, 접속일 2026.04.23.
<https://www.axieoh.com/contact>, 검색일 2026.03.22.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lassical Narratives
in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and Its Significance
-Focusing on the Adaptation of *The Tale of Sim Cheong*-

Choi, Sue-hyu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and significance of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lassical narratives in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by Korean American author Axie Oh. While the novel adopts *The Tale of Sim Cheong* as its fundamental narrative structure, it also reconstructs and transforms classical Korean narratives such as *Heungbu and Nolbu* and *Fairy and Woodcutter* as embedded stories.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aspects of Korean classical narratives that are appropriated and transformed in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The novel constructs its primary narrative framework based on *The Tale of Sim Cheong* while simultaneously reworking *The Tale of Sim Cheong*, *Heungbu and Nolbu*, and *Fairy and Woodcutter* into embedded narratives.

N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Tale of Sim Cheong* in the novel, focusing on the mode of rebirth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helper structure. Unlike *The Tale of Sim Cheong*, in which Sim Cheong's rebirth is presented as a reward for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rebirth in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is achieved through the process of resolving a curse. In this process, the nove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care for family and community with self-care. Furthermore, the role of helper figures shifts from transcendental beings such as the Jade Emperor and the Dragon King to ancestors such as great-aunts and grandfathers, thereby emphasizing kinship communities and reinforcing familial care.

Such transformation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inherit the themes of familial care, self-care, and communal care already present in *The Tale*

of *Sim Cheong*, while simultaneously expanding them into an ethics of care that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care for family and community and care for the self. In addition, through its use of ancestral helpers and the transformation of embedded narratives, the novel foregrounds care within kinship communities and highlights ethnic narratives. This aspect closely resembles the representation of grandparent-grandchild care and ethnic storytelling frequently found in diaspora literature and cultural content.

Key Words *The Girl Who Fell Beneath the Sea*, *Sim Cheong*, care, *Heungbu and Nolbu*, *Fairy and Woodcutter*, transformation and Its Significance

논문투고일: 2026.04.23.
심사완료일: 2026.05.13.
게재확정일: 2026.05.18.

